

# 해체주의의 차연을 응용한 업스타일의 조형성 연구 - 업스타일의 표현기법에 따라서 -

양미숙 · 김성남<sup>†\*</sup>

안산1대학 뷰티아트과 · 서경대학교 미용예술학과\*

## The Study on the Formativity of Up Style Applied Deconstructive Differance - Based on the Expressive Techniques of Up Style -

Mi-Sook Yang · Sung-Nam Kim<sup>†\*</sup>

Dept. of Beautician Arts, Ansan College  
Dept. of Beauty Arts, Seokyeong University\*  
(2007. 5. 4. 접수/2007. 6. 5. 채택)

### Abstract

All styles began to coexist by recognizing diversity and changeability instead of an absolute value system of beauty or truth in the general culture field of modern society. In other words, the characteristic of deconstructivism, which breaks down the boundary between order, balance, style and genre within the texture, is brought out. This characteristic is also having an effect on the field of up style in a hair genre to secure the beauty of incompleteness as the beauty of the present time, involving the beauty of ugliness in the boundary of beauty. This study aims at presenting new vision by applying deconstructivism to the up style to express as an original and experimental formative art with various expressive methods. In addition, it aims at being perfect for presenting the creativity and artistry through expressive techniques by formative factor of deconstructive up style to find new methods and directions to design concept with main expressive ability of deconstructive up style.

**Key words:** Deconstructive(해체주의), Differance(차연), Up styles(올림머리), Formativity(조형성), Expressive techniques(표현기법)

### I. 서 론

오늘날 헤어드레싱 세계에 있어서 업스타일의 분야는 문화산업의 발달과 함께 뷰티 산업뿐만 아니라 방송, 영화, 연극, 광고 등 여러 분야에서 요구되어지는 예술의 한 분야로 발전해 가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색상, 형태, 질감을 창조하고 상황과 장소에 따라 다양한 변화가 가능하므로 토탈 코디네이션의 한 분야로 업스타일의 비중이 커져가고 있는 실정이다<sup>1)</sup>.

또한 현대 사회의 전반적인 문화 영역에서 미나 진리를 추구하는 절대적인 가치 체계 대신 다양성과 가변성을 인정함으로써, 모든 양식이 공존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이는 텍스처내의 질서와 균형, 양식, 장르간의 경계를 허무는 해체주의의 특성이 드러나고 있다<sup>2)</sup>. 이러한 특성은 헤어 장르에 있어서 업스타일의 분야에도 영향을 미쳐 미의 범주에 추의미를 끌어들이면서 미완성의 미를 이 시대의 미로 자리 잡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매스미디어와 산업화로 인해 다원화되고 복잡해진 사회구조 속에 살고 있는 대중들은 신념과 가

<sup>†</sup>Corresponding author: Sung-Nam Kim  
E-mail: idohair@hanmail.net

치관의 혼돈 속에서 자아의 정체성을 위해 개성화, 다양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짐으로 이와 함께 예술에 있어서도 이전의 형식적인 스타일을 해체하거나 거부하고 풍부한 발상력과 영감력에 근거하여 자유분방한 스타일로 표현되어지고 있다. 즉 다양한 예술가들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해체주의 철학을 배경으로 한 예술작업을 통해 인간의 정신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시도해 왔다.

해체주의란 차이, 억압된 것의 복귀현상, 탈 중심화 등의 개념으로 경계가 존재하는 성, 시간, 장소 등 모든 것을 해체시킨 철학사상으로 20세기 후반 사회문화 뿐만 아니라 패션과 건축, 가구 등 조형예술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조이다<sup>3)</sup>.

본 연구는 업스타일에 해체주의를 응용함으로써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다양한 표현방법으로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조형예술로서 표현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아울러, 해체주의 업스타일의 조형요소별 표현기법을 통하여 창조성과 예술성을 제시하는 밑거름이 되며, 해체주의 업스타일의 주된 표현 능력과 더불어 디자인 발상에 새로운 방법과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해체주의적 업스타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앞으로 많은 창작활동에 보탬이 되어 미용 분야에 대한 위상과 예술적 발전을 높이고자 한다.

## 1. 연구 내용 및 방법

연구방법에 있어서는 데리다가 말하였듯이 ‘해체는 관념, 제도 등을 지탱시키는 매커니즘의 내부를 들여다보는 것’, ‘대상의 완전한 파괴가 아니라 내부로부터 근원적인 비판과 해체를 통해 새로운 어떠한 것을 창조해내는 행위’이며 해체주의 디자인은 정형화되고 관념적인 디자인의 의미를 해체하고 있다<sup>4)</sup>. 데리다의 텍스트는 의미가 존재하지 않고 불변의 진리를 타기 한다고 하였다.

해체주의에서 업스타일은 고정된 공간에서의 실용성과 장식성이라는 진리를 해체주의 특성에 맞추어 차연의 텍스트(text)내에서 공간의 개념차이와 시간적인 연기의 개념을 대기, 공간적인 개념의 차이를 간격으로 실용성과 장식성이라는 진리를 해체, 업스타일의 표현기법으로 재조명 조형예술 작품으로 제시하고자한다.

이론적 배경에 관한 분석은 해체주의의 국내, 외

서적 국내에 발표된 석, 박사 학위 논문과 국내 학회지에 발표된 논문들을 중심으로 이론적 고찰을 하였다.

본 연구는 해체주의의 특성 중 차연의 특성을 분석하여 업스타일의 분야에 연구된 저서들을 중심으로 패러다임에 다양한 업스타일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해체주의를 테마로 창조성이 돋보이는 해체주의의 특성 중 차연을 업스타일 작품에 표현하고자 제작 하였다.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체주의 이론의 기본개념과 특성을 토대로 선행 연구 및 관련 전문서적을 참고하여 차연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새로운 스타일을 제시하기 위한 이론을 고찰하고 업스타일의 특성을 표현기법에 분류해 보고자 한다.

셋째, 헤어조형의 개념 및 특성을 조형적으로 분석해 본다.

이를 토대로 해체주의의 원리에 입각한 업스타일의 조형연구를 목적으로 업스타일과 해체주의에 관한 문헌 및, 학술도서, 사진 등을 수집, 분석하여 업스타일의 조형적인 연구를 통해 총 6점의 작품을 실물 제작 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1. 해체주의 이론의 기본개념과 특성

해체주의는 서양철학의 뿌리 깊은 전통의 이분법적인 이론에 대항하여 차연, 상호 텍스트성 의미에 불확정성을 기본개념으로 전통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모든 것을 역진시키고, 더 나아가 그 관계 자체를 해체시키는, 즉 닫힌 세계를 거부하고 열린 세계를 추구하는 철학 이론이다. 해체주의의 기본 이론은 현대의 포스트 모던한 상황과 추가 산업 사회의 다원화 경향을 배경으로 인문 과학, 사회, 예술 분야 등 다방면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

1960년대에 널리 확산된 구조주의(structuralism)는 자아나 주체, 개인 사유를 무시한 채 모든 것을 객관화 시키고, 개체에 대한 특권을 구조에 부여함으로써 전체주의적 독선을 나타내는 한계에 부딪치게 되었다. 자크 데리다(Jacqueperida)는 1966년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서 열렸던 국제 심포지움에서 ‘인문과학의 언술행위에 있어서의 구조, 기호, 그리고 유희(Structure,

Sign, and Play in Discourse of the Human Sciences)’ 라는 논문에서 플라톤 이래 서구 형이상학의 근본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해체주의를 등장시켰다. 자크 데리다의 해체주의적인 철학적 기본 입장은 ‘현존의 형이상학’이라 불리우는 철학적 사유 전통에 대한 강력한 비판으로 형이상학적 유산들은 철학과 신학을 ‘로고스 중상주의’에 빠지게 했고, 언어학은 ‘음성 중심적인 문자의 형이상학’에 빠지게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을 전개하는 접근방식으로써 제기된 일반적인 전략이 바로 해체로써, 데리다의 해체는 해체라는 단어조차 해체하는 모든 텍스트(text)들의 대한 해체로, 전통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모든 것을 뒤집어 엮고 기존개념에 대해 의문을 제기 하므로써 ‘개체의 존엄성과 자유’, ‘소외된 타자(他者)’, ‘차이’, ‘역사성’을 인정하여 그동안의 고정된 서구이성중상주의에 종말을 고하고 새로운 인식에 장을 열게 하였다. 해체란 기존의 논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체를 해체하여 각각의 특징을 존중하면서 다양함과 복합적인 구조, 즉 탈구조적인 형식 아닌 형식을 이룬다<sup>5)</sup>.

## 2. 해체주의 특성

본 연구에서는 해체주의의 특성을 디자인 분야의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차연, 의미의 불확정성, 상호텍스트성, 탈 현상의 네 가지로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1) 차연(Differances)

차연(차연, differances=차이+연기)이란 프랑스어 differance에서 유래한 것으로, 데리다가 만든 산조어이다. 차연은 공간적인 차이의 개념에 시간 개념이 도입된 것으로 차이가 지연되는 작용을 가리키는 것이다.

### 2) 의미의 불확정성(Intermeaning of meanings)

‘존재란 모든 지시어(signifiers: 언어의 기호적 측면)가 언급하는 궁극적인 지시대상(signified: 언어의 의미적 측면)’으로 구조주의의 기호모델이 적당하지 못하는 것이다.

### 3)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

상호텍스트성이란 텍스트가 자율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출발하며, 주어진 한 텍스트가 그 이전에 존재해 있는 다른 텍스트들로부터 어떤 요소를 취해오는 것으로 텍스트는 서로 교차해서 무한히 확장될 수 있는 조직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 4) 탈 현상(Breakaway from Phenomanon)

해체주의에서 니체와 데리다가 추구하는 ‘탈’ 현상은 단순히 형이상학의 부정이 아니라 이원론적인 체제 즉, 존재/부재, 실제/허구, 본질/현상, 구상/주상 등에서 우위의 개념에 비중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질서를 파괴하고 떨어져 나옴으로써 부재, 허구, 현상, 주상 등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이다<sup>6)</sup>.

## 3. 업스타일의 개념

업스타일이란 사전에서 찾아보면 (up-style)<명사> 머리를 높이 빗어 올려 뒤에서 마무리고 목덜미를 드러내는 여자의 머리모양 또는 여자의 머리꾸밈새의 하나라고 정의 되어 있다<sup>7)</sup>.

또한 업스타일은 ब्ल로우 드라이, 전기 세트, 아이론 등에 의해 웨이브를 만들거나 물리적 영향을 주지 않는 상태에서 밴드와 핀으로 두상의 어느 부분에서 형(form)을 이룰 수 있도록 고정하는 것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 4. 업스타일의 표현기법 이미지

업스타일의 표현기법은 다음과 같이 6가지로 분류하였다<표 1><sup>8)</sup>. 미용계에 업스타일에 대한 분류는 학계에서 학문적으로 정립되어있지 않으므로 가장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피벗 포인트 교재에 의한 분류에 근거를 두고 분류 하였으며, 살롱 현장에서도 통상적으로 이 6가지 범주 안에서 살롱 워크를 행하고 있다.







1) 꼬기(Twists Style): Twists는 빗줄 같은 모양을 내기 위해 한 가닥 두 가닥 혹은 세 가닥의 머리가 말려 있거나 회전한 것이다.

2) 매듭(Knots Style): Knots는 머리카락 하나 혹은 여러 개를 함께 엮거나 묶어주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3) 겹치기(Overlaps Style): Overlaps는 두개의 머리카락을 서로 반대쪽 가닥위로 겹쳐서 십자 겹침 효과를 얻는 것이다.

4) 땀기(Braids Style): Braids는 세 가닥이나 그이

<표 1> 업스타일의 표현기법

		
1) 꼬기(Twists Style)	2) 매듭(Knots Style)	3) 겹치기(Overlaps Style)
		
4) 짚기(Braids Style)	5) 고리(Loops Style)	6) 롤(Rolls Style)

상의 머리카락을 교차하거나 엮는 것으로 구성되어 진다.

5) 고리(Loops Style): Loops는 머리카락을 접거나 구부리거나 둥그랗게 하여 곡 선 모양으로 고정하는 것이다.

6) 롤(Rolls Style): Rolls는 머리카락 자체 내에서 싸여지고 감겨지는 것이다.

### 5. 헤어조형의 개념

조형이란 여러 가지 것을 사용하여 어느 관념에서 형체를 만들어내는 것을 뜻하며 어떤 물질을 빌려 이것에 필요한 형태를 부여하는 행위이다.

즉, 창조적 표현 활동을 형성하는 조형예술은 새로운 시각형식에 대한 가능성의 발구이다<sup>9)</sup>.

헤어는 신체를 장식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얼굴의 형태나 유행에 따라 여러 형태로 변화한다. 헤어조형이란 헤어 자체를 순수하게 분석하고 다양한 기법에 의해 선의 조합이 면을 형성하고 이러한 형이 입체적 헤어를 구성하고 있다. 또, 헤어는 구조적 특성상 조형의 요소로 형태, 색채, 질감을 들 수 있다. 큰 의미로 형태(style)는 헤어컷트, 색채는 헤어 염색, 질감은 헤어 펴에 비유 할 수 있지만 작은 의미로 헤어 컷트에서의 형태란 전체 머리형을 이루는 스타일 즉 폼으로 풀이 될 수 있으며, 색채란 자연적인 또는 인위적으로 변형된 머리색을 의미한다. 그리고 질감이란 모발의 강·약 상태나 직모 또는 곱슬 등과 같이 자연모

발에 의하여 나타나는 텍스처(texture)와 퍼머에 의하여 나타나는 웨이브 등에 의하여 형성된다<sup>10)</sup>.

### 6. 헤어조형의 특성

#### 1) 형태(Style)

형태에는 구상적 형태와 추상적 형태가 있다. 형태는 구체적인 형태의 의미를 내포하며 자연에서 얻어 질 수 있는 꽃, 동·식물, 조개껍질, 나무 모양 등의 객관적인 실물에 적용한 형태를 말한다. 이를 헤어디자인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순수한 헤어 커팅으로 본질적 형태 그대로의 모질, 모류, 두상의 조건, 모양의 특성을 살리는 스타일을 들 수 있다.

#### ① 점(Point)

헤어디자인에서의 점은 그 스타일의 포인트를 뜻하는 것이다, 전체적인 형태의 크기와 끝부분을 점으로 가정하고 시선을 집중시키는 시각적 효과의 원리를 활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수평선상의 두개의 점은 안정감을 주게 되고 대각선상의 두개의 점은 동적인 시각적 효과를 주어 율동감을 부여한다. 크기가 다른 두개의 점은 큰 점이 헤어스타일의 포인트 역할을 하며 큰 점과 작은 점의 강약의 어떻게 위치하느냐의 따라 전체적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

#### ② 선(Line)

선은 점과 점이 이어졌을 때 형성된다. 헤어 디자인에서는 점의 이동방향이 일정한 것을 직선, 그와

반대로 선의 방향이 변화하는 것을 곡선이라 할 수 있다. 헤어디자인에서는 원형의 곡선과 C자 모양의 선 A곡선 U곡선으로 나눌 수 있다.

③ 면(Shape)

면은 선과 선이 이어진 것으로 정해진 위치에 있어서 길이 및 폭의 방향으로 퍼진 2차원의 연속체이다.

면은 직선 면과 곡선 면 또는 그 혼합된 면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면의 성격도 역시 구성하는 선의 감각에 영향을 받는다. 직선 면은 곡선 면보다 일반적으로 강하고 냉담한 성격을 가지고 곡선 면은 부드럽고 순한 따뜻한 면이 있어 그 혼합 면은 양자의 성격을 다 갖고 있다.

④ 형(Form)

형은 면과 면이 이어진 것으로 물체에 있어 그것이 에워싸고 있는 면이나 공간의 실루엣을 말한다.

2) 색(Color)

조형에 있어서 색은 매우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미술가들은 과학적 바탕위에서가 아니라 직관적으로 색채를 다룬다. 색은 우리에게 미적 정서를 야기 시키며 그 진정한 의미는 조형이나 생활에 있어서의 어떤 진, 후 맥락이나 관계 속에서 드러난다.

3) 질감(Texture)

질감이란 형태, 색채와 함께 디자인의 필수 요소로써 재료나 기법에 의하여 나타나는 물체 표면에 특징으로써 촉각으로부터 시각적 촉감의 이르기까지의 모든 느낌을 말한다.

III. 작품제작

1. 작품제작

본 논문은 해체주의를 업스타일에 응용하여 적용함으로써 순수하게 분석하고 미적 측면을 파악하여 새로운 조형미를 형성화함이다.

본 연구자는 해체주의의 실험정신과 표현특성을 업스타일에 적용하여 보다 예술적인 표현방법을 얻어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독창적인 오리지널리티를 개발시킴과 동시에 다른 예술에서처럼 작가의 내면세계와 조형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업스타일

이란 매개체를 통해 모델을 이용하여 총 6점의 작품을 실물 제작 하였다.

1) 업스타일의 표현, 테크닉 6가지를 표현기법을 이용한 차연 style 디자인 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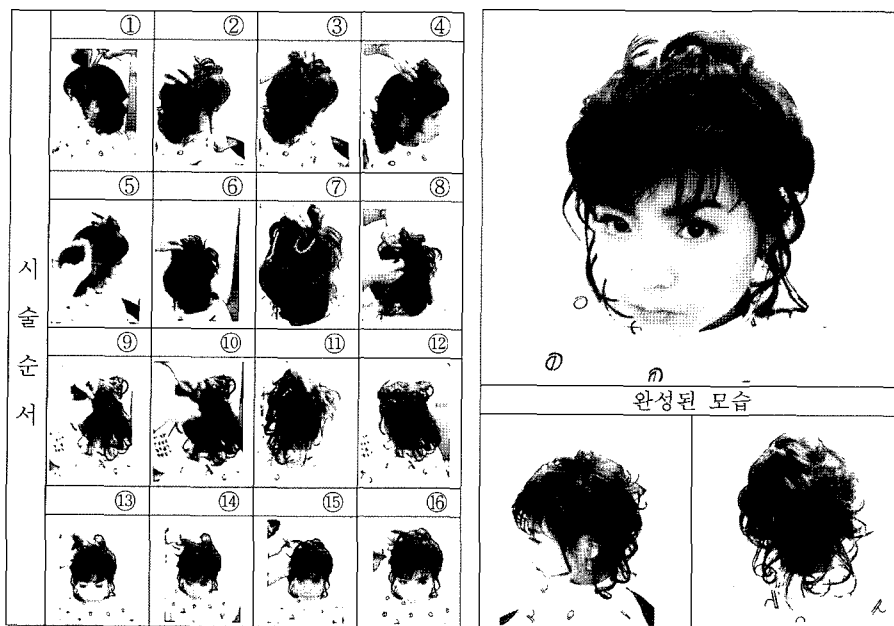
차연의 이미지를 작품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공간적인 차이의 개념에 시간 개념이 도입되어 차이가 지연되는 작용을 나타내는 것으로 시간, 공간의 초월과 수직과 수평의 대립관계 파괴와 공간과 시간의 개념을 나타내기 위해서 차연적 느낌을 디자인으로 표현해 보았다.

차연의 논리는 동시성의 체계에서는 불가능하며 형식의 응집성이나 전체성과 완전성과는 다른 것이다. 그러므로 업스타일에 차연의 이미지나 느낌을 디자인하기 위해서 업스타일의 다양한 디자인 테크닉 중 꼬기, 매듭, 겹치기, 땅기, 고리, 롤 테크닉을 이용하여 하나의 디자인 안에 텍스처적 질감을 서로 다르게 표현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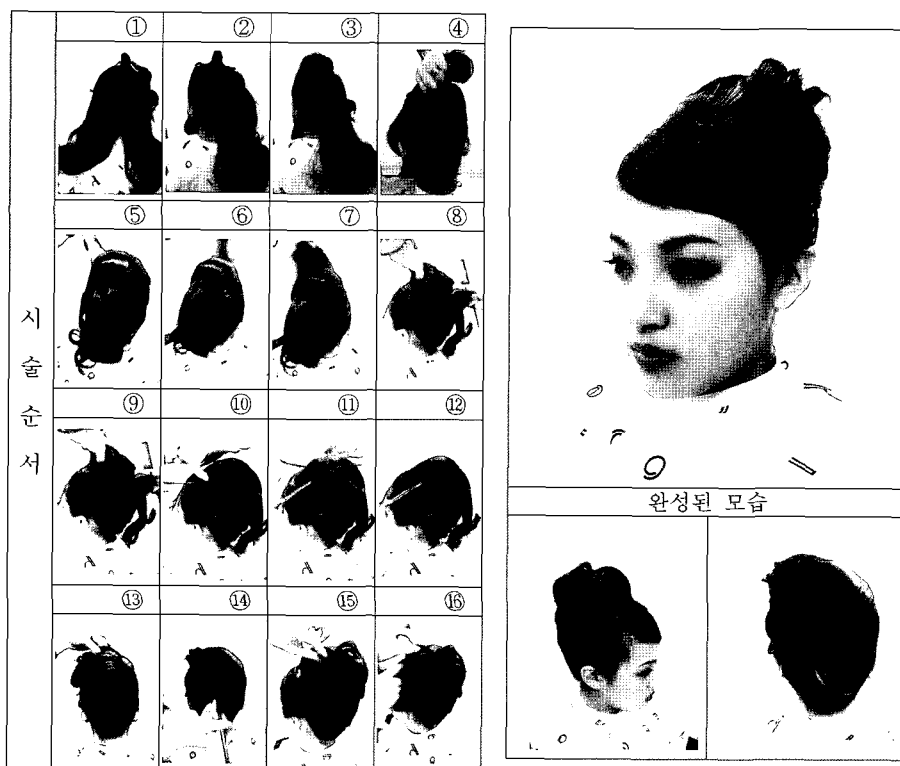
업스타일의 표현기법 테크닉을 이용하여 하나의 디자인 안에 텍스처적 질감을 서로 다르게 표현해 낸 작품으로 서로 다른 요소가 만나 상호 융합되어 전체적인 하모니를 연출한 스타일로 전체적으로 6가지 표현기법 테크닉<그림1~6>으로 베이스를 만들어 놓고 끝머리는 루즈한 컬의 느낌으로 표현하여 차연의 이미지를 나타낸 작품이다.

(1) 꼬기(twists) 표현기법을 이용한 차연 style 시술 과정

- ① 이어라인의 머리를 꼬아서 탑에 고정시킨다.
- ② 우측도 프린지를 빼놓는다.
- ③ 탑에 머리를 꼬아서 고정시킨다.
- ④ 이어라인 모발을 꼬아 탑에 고정한다.
- ⑤ 계속해서 동일하게 진행한다.
- ⑥ 크라운 모발도 트위스트하여 편으로 고정시킨다.
- ⑦,⑧ 동일 테크닉이다.
- ⑨,⑩ 네이프 사이드 머리도 끝자락 빼놓고 비틀어 고정시킨다.
- ⑪ 반대편도 동일하다.
- ⑫, ⑬ 프론트 탑머리 컬감을 살려 컬에 악센트를 준다.
- ⑭ 전체적인 발란스를 보며 정리해 나간다.
- ⑮ 섬세하게 컬감을 살려준다.
- ⑯ 손가락 끝으로 매만져 준다.



<그림 1> 꼬기(twists) 표현기법을 이용한 차연 style 시술순서 및 완성사진



<그림 2> 매듭(knots) 표현기법을 이용한 차연 style 시술순서 및 완성사진

(2) 매듭(knots) 표현기법을 이용한 차연 style 시술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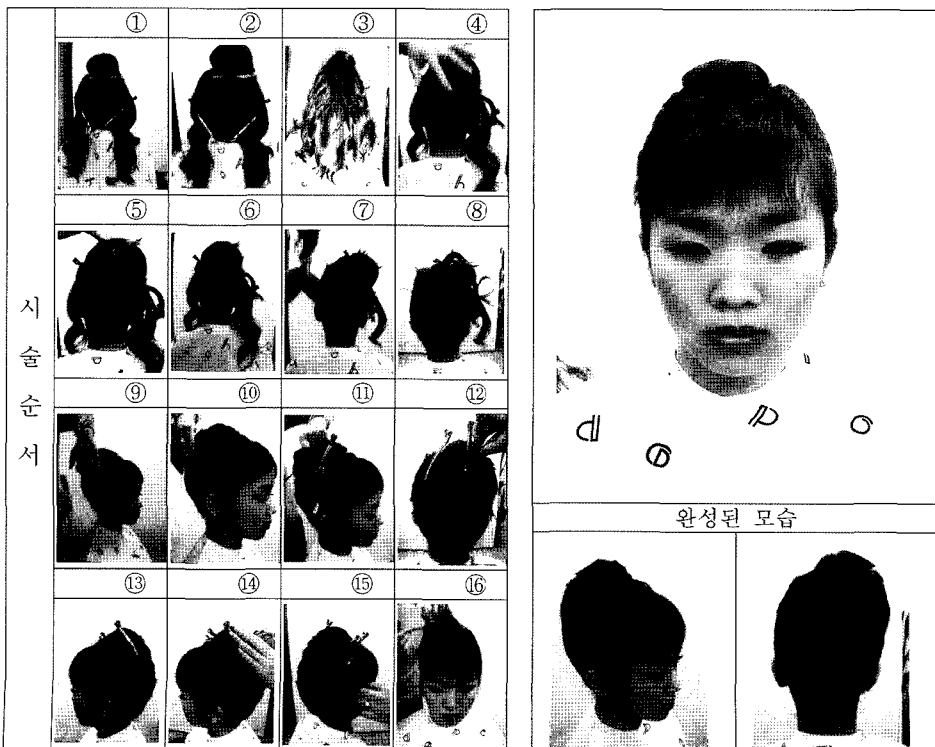
- ① 이어라인 브로킹을 뜬 후, 백에 삼각베이스를 떠서 골덴에서 밴딩처리 한다.
- ② 왼쪽사이드 백콤을 넣어 브러싱을 한 후 편으로 고정한다.
- ③ 상으로 묶은 머리에 고정한다.
- ④ 오른쪽 사이드도 백콤을 넣어 브러싱 한 후 살짝 비틀어 고정시킨다.
- ⑤ 묶은 머리 위에 상을 놓는다.
- ⑥ 앞머리 백콤을 넣는다.
- ⑦ 백콤을 넣은 모습이다.
- ⑧ 백콤을 넣은 머리를 매듭을 돌리듯이 돌린다.
- ⑨ 발란스를 보면서 컨트롤한다.
- ⑩ 편으로 고정시킨다.
- ⑪ 발란스를 잡는다.
- ⑫ 완성된 모습이다.
- ⑬ 아래 묶은 머리도 원을 그리는 매듭으로 구도를 잡는다.
- ⑭ 발란스를 잡는다.
- ⑮ 불륨이 죽은 부분은 살짝 머리자락을 빼내어 입

체감을 준다.

- ⑯ 결감을 만들어 준다.

(3) 겹치기(Overlaps)표현기법을 이용한 차연 style 시술과정

- ① 이어 두 이어 브로킹 한 후 탑에서 삼각베이스 떠서 묶은 모습이다.
- ② 좀 더 자세하게 본 모습이다.
- ③ 묶은 머리 아래에 상으로 고정한 후 아랫머리를 8등분한다.
- ④ 좌우를 교차로 겹치기하여 편으로 고정한 모습이다.
- ⑤ 계속해서 교차로 겹치기 해 나간다.
- ⑥ 완성된 모습이다.
- ⑦ 왼쪽사이드 머리는 백콤을 넣은 후 브러싱 한다.
- ⑧ 백센터에 편으로 고정시킨다.
- ⑨ 반대편 사이드도 동일하게 하여 백센터에 고정시킨다.
- ⑩ 결을 매만져 준다.
- ⑪ 사이드도 결을 만져준다.
- ⑫ 백센터는 발란스를 잡아준다.



<그림 3> 겹치기(Overlaps)표현기법을 이용한 차연 style 시술순서 및 완성사진

- ⑬ 왼쪽 사이드도 결을 잡아준다.
- ⑭, ⑮, 전체적으로 결과 발란스를 잡아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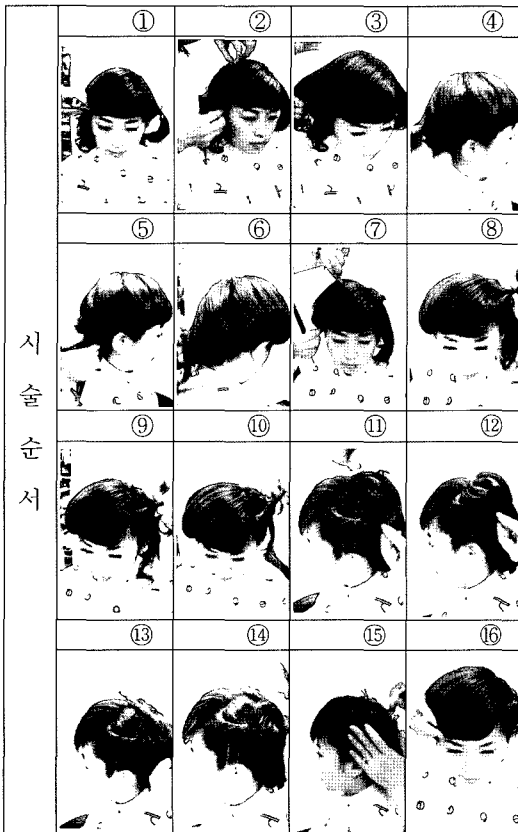
(4) 땀기(Braids)표현기법을 이용한 차연 style 시술 과정

- ① 프린지를 둥근 머쉬룸 형으로 살짝 비틀어 핀으로 고정한다.
- ② 사이드머리 살짝 등금을 살려 핀으로 고정한다.
- ③ 트라이 앵글섹션을 떠서 고정시킨다.
- ④ 백사이드도 동일하게 진행한다.
- ⑤ 핀이 안보이도록 고정시킨다.
- ⑥ 한쪽 면 완성된 모습이다.
- ⑦ 발란스를 잡는다.
- ⑧ 반대편 사이드는 땀기에 들어간다.
- ⑨, ⑩ 트위스트 시켜가며 땀아간다.
- ⑪ 땀아가며 머리자락을 살짝 매만져 준다.
- ⑫ 머리끝 자락은 C결을 만들어 준다.
- ⑬ 아래 자락도 결을 만들어 준다.

- ⑭ 발란스를 잡는다.
- ⑮ 전체적으로 정돈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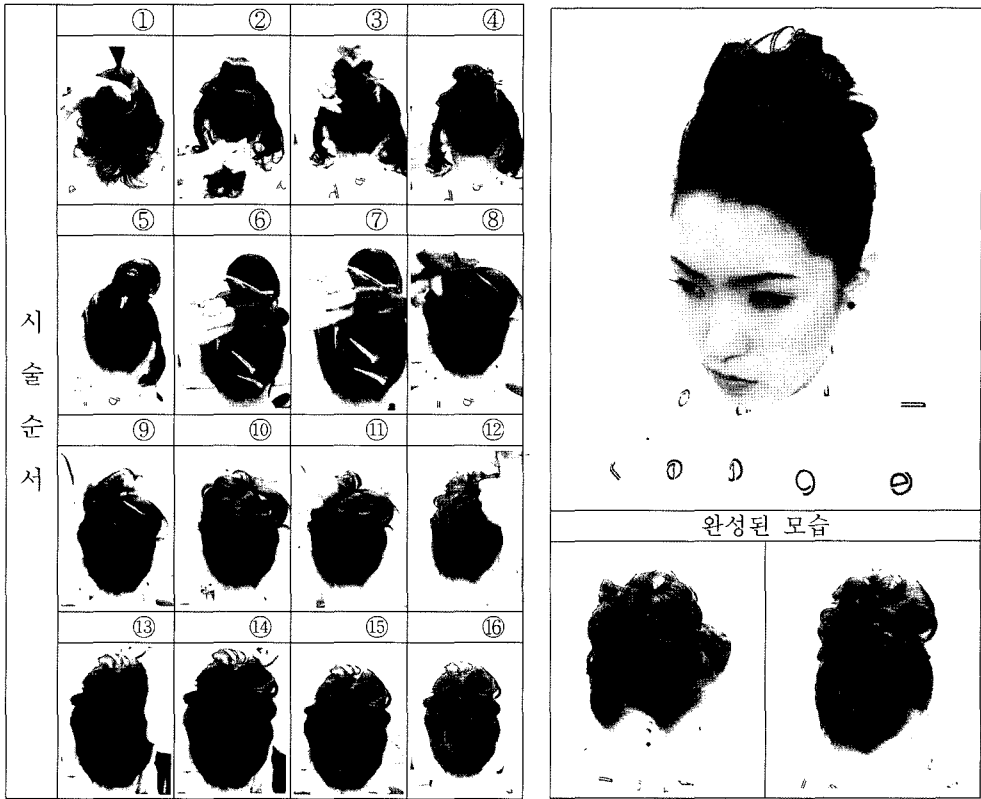
(5) 고리(Loops)표현기법을 이용한 차연 style 시술 과정

- ① 크라운과 골덴에서 2묶음으로 머리를 묶는다.
- ② 네이프 머리는 살짝 비튼다.
- ③ 비튼 머리를 고정시킨다.
- ④ 고정된 모습이다.
- ⑤ 왼쪽 사이드도 살짝 비틀어 고정한다.
- ⑥ 롤을 만든다.
- ⑦, ⑧ 계속해서 롤을 만들어 핀으로 고정시킨다..
- ⑨, ⑩ 전체적인 발란스를 확인하면서 롤을 만든다.
- ⑪ 계속해서 진행한다.
- ⑫, ⑬ 너무 작지 않게 균일하게 롤을 만든다.
- ⑭ 전체적인 발란스를 보며 정리해 나간다.
- ⑮ 섬세하게 롤 감을 살려준다.
- ⑯ 손가락 끝으로 매만져 준다.



<그림 4> 땀기(Braids)표현기법을 이용한 차연 style 시술순서 및 완성사진





<그림 5> 고리(Loops) 표현기법을 이용한 차연 style 시술순서 및 완성사진

(6) 롤(Rolls)표현기법을 이용한 차연 style 시술과정

- ① 이어 두 이어 브로킹 후 골덴포인트에서 섹션을 라운드로 나눈다.
- ② 백콤을 넣는다.
- ③ 브러싱 한다.
- ④ 오른쪽 귀 뒤에 비틀어 고정시킨다.
- ⑤ 고정된 모습이다.
- ⑥ 사이드머리도 백콤을 넣어 브러싱 한다.
- ⑦ 오른쪽에 고정시킨다.
- ⑧ 반대편 사이드도 백콤을 넣어 브러싱하여 센터에 고정한다.
- ⑨ 탑 섹션이다.
- ⑩ 백콤을 넣는다.
- ⑪ 둥근 양감을 살려 살짝 비틀어 센터에 고정한다.
- ⑫ 남은 끝자락에 컬을 만든다.
- ⑬ 아래 부분도 컬을 만든다.
- ⑭ 네이프 머리는 살짝 비틀어 고정한다.
- ⑮ 끝자락 머리 아이론을 이용해 컬을 만든다.
- ⑯ 컬 머리로 둥근 컬을 만든다.

#### IV. 결론 및 제언

업스타일과 해체주의와의 만남은 그 미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예술성의 추구로 헤어스타일이 예술적 조형으로 발전, 진보하는데 많은 영향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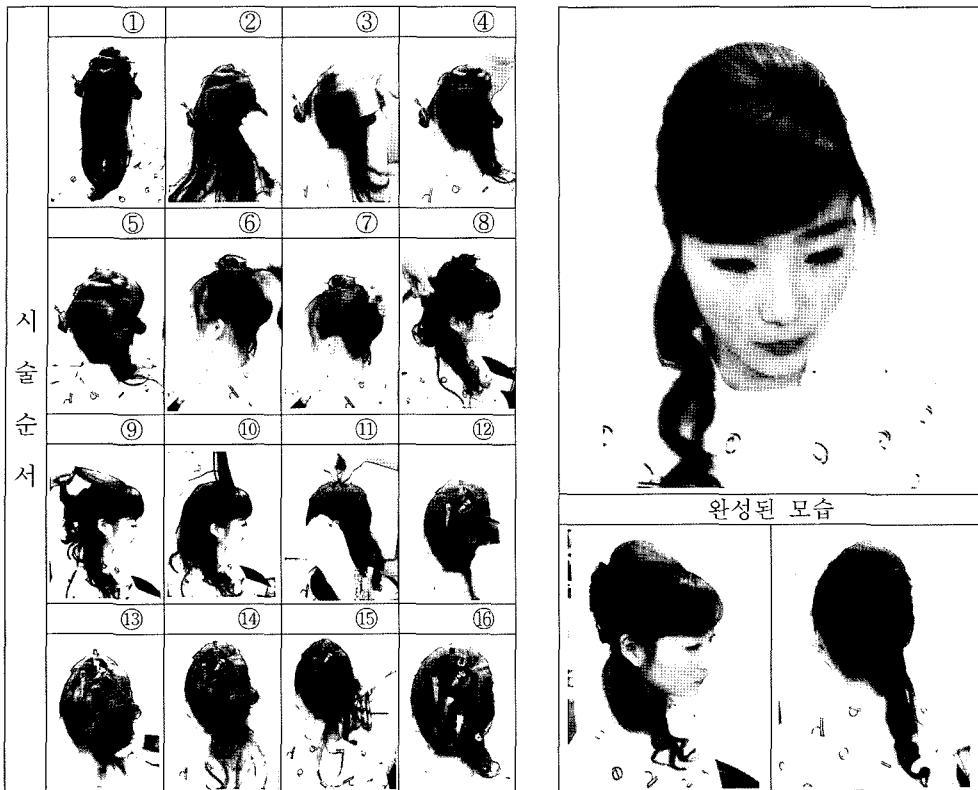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개성적이고 독창적인 오리지널리티한 디자인 개발을 위해 해체주의를 응용하여 업스타일을 창작하였다.

이러한 해체주의를 응용한 업스타일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의 조형적인 아름다움의 재현을 추방하고 사물을 해체주의적 관점의 업스타일로 표현함으로써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독창성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해체주의의 특성을 응용한 디자인은 새로운 디자인 접근방법의 제시를 통해 디자인의 조형의 가치성과 발전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셋째, 해체주의적 업스타일의 디자인적인 접근이 가능했고 이를 통해서 형태와 구조면에서 새로운 업스타일의 무한한 가능성을 알 수 있었다.



<그림 6> 롤(Rolls)표현기법을 이용한 차연 style 시술순서 및 완성사진

이상과 같이 업스타일의 디자인에 있어서 해체주의적 사고는 절대적 가치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논리적인 조형성을 벗어나 새로운 방법론의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하겠다.

앞으로 업스타일이 조형예술로 부각됨에 따라 해체주의 업스타일의 이미지적 특성과 조형요소별 표현기법을 통하여 아이디어가 부족한 업스타일계에 무한한 영감의 원천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업스타일이 시도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이러한 패러다임에 더 많은 연구를 계속한다면 현재의 미용 산업에 작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 참고문헌

1) 김환(2001). 열두손가락 업스타일. 서울: 화신문화, pp.14-19.  
 2) 김형효(1998). 데리다의 해체철학. 서울: 믿음사, p.29-

38.  
 3) 김아진, 도희규(1999). 해체주의 조형성에 따른 패션디자인 연구. 경일대학교 논문집, p.2-3.  
 4) 조유나(2004). 현대 가구에서 나타나는 해체주의 디자인 성향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2-25.  
 5) 양세은(1992). 해체주의 관점에서 보는 조형 언어적 개념과 실내 환경 디자인에서 접근 방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8-49.  
 6) 이지윤(1994). 해체주의 공간의 구성원리 및 디자인특성과 조형적 접근방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21-22.  
 7) 한성진(2003). up & up 한성진 15분 업스타일. 서울: 드림북, p.5.  
 8) long hair design(1994). pivot point, p.6.  
 9) 하강연(2002). 헤어디자인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 헤어 커트를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3-21.  
 10) 조미영(1998). 현대 헤어스타일에 나타난 해체현상에 관한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1-13.